

 <p>대한민국 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p>	<h1>보도자료</h1> <p>(2019. 5. 6 월)</p>	 <p>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p>
	<p>국회미래연구원 http://www.nafi.re.kr (02) 786-2190</p>	

사단법인 미래학회와 국회미래연구원 2019년 공동춘계학술대회 - Big Emerging Issues on Humen and Lives -

- 요약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朴進)은 5월 3일(금), 13:00-17:4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Big Emerging Issues on Humen and Lives”라는 주제로 한국기술혁신학회 미래연구위원회가 후원 하에 사단법인 미래학회와 2019년 공동춘계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본 대회는 국회미래연구원의 2050년 연구결과물을 바탕으로 하되 미래 인간들(Humen)의 육체와 정신, 미래의 삶에 대한 미래 연구자들의 심층분석 연구를 발표하였다. “트랜스 인간”, “네트워크 사이보그 정치인”, “공유인간” 등 다양한 미래 인류의 특성들이 발표 및 논의되었고 이들이 그리는 미래의 삶을 둘러싼 “초고령 도시에서의 삶”, “현실에서의 ‘통속의 뇌’와 디지털 범용기술”, “한반도의 미래” 등으로 예측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19년 연구에서도 이러한 인간 중심의 미래 예측과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끝>

작성자 :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허종호
(02-2224-9812, joheo@nafi.re.kr)

※ 5월 6일(월)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朴進)은 5월 3일(금), 13:00-17:4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Big Emerging Issues on Humen and Lives”라는 주제로 한국기술혁신학회 미래연구위원회가 후원 하에 사단법인 미래학회와 2019년 공동춘계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의 박성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트랜스휴먼 시대의 도래: 건강 이슈를 중심으로”에서는 인간적 기계와 기계적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를 상정하고 기존 인간이 가지고 있던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확장하려는 욕망이 미래의 기술과 만났을 때의 사회변화를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북대학교 손현주 교수는 인공지능의 현황을 소개하고 미래 정치와 거버넌스 영역에서의 활용을 예상하면서 2050년에 네트워크 사이보그 정치인의 등장을 예측하였다. 배일한 카이스트 조천식녹색교통대학원 교수는 미래 인간한계의 확장과 뇌-계계의 연계기술, 이동통신기술, 기후 변화 대응 등으로 예측되는, 인간의 육체와 감각을 공유할 가능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윤기영 FnS 컨설팅 대표는 인간 확장의 핵심 기술인 뇌 관련 과학기술의 예측을 통해 이머징 이슈들을 정리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 민보경 부연구위원은 수명연장으로 인해 초래될 초고령 도시와 그 안에서의 노인의 삶을 예측하였다. 저출산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다수를 차지할 미래에서 노인들은 어떤 장소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슈들을 정리하며 노인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이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초고령 도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유재광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뚝스데이 시나리오: 미중 패권경쟁과 한반도의 미래”라는 발표에서 미-중의 세계 정치경제 환경을 둘러싼 패권 경쟁의 현 상태를 정리하고 정치적 이론을 동원하여 미-중 관계를 예측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19년 연구에서도 이러한 인간 중심의 미래예측과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작성자 :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허중호
(02-2224-9812, joheo@nafi.re.kr)